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병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강영규 실장, 대전보훈병원 방문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병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시설 점검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목) 충청권 유일의 보훈병원인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하여 보훈 의료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6.25(목), 15:30 ~ 17:00 / 대전보훈병원(대전 대덕구)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인적자원예산과장,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 등
(병원) 대전보훈병원장, 간호실장, 운영실장, 관리부장 등

강 실장은 대전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를 보고 받은 뒤,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어진 일정에서는 재활센터와 로봇치료실 등 대전보훈병원의 주요 진료 지원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재활 장비와 진료 환경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공자 치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더욱 촘촘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권역에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훈병원을 찾는 보훈의료 대상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과 의료 시스템 고도화,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27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동선 (044-214-1280)
		담당자	사무관	지혜조 (jeje43@korea.kr)
	예산실 인적자원예산과	책임자	과 장	최진광 (044-214-2530)
		담당자	사무관	최현규 (81chk@korea.kr)

